

자본확충펀드 한은 10조 · 기은 1조

5월 은행 가계대출 6.7조 ↑

기재부,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캐피탈 콜 방식 지원 · 캠프가 운영 ·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0조를 대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 발표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은의 대출(10조원)과 IBK기업은행의 대출(1조원)이 더해져 자본확충펀드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정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5~8조원을 커버하며, 그 이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펀드 규모를 11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캐피탈 콜은 한 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 업체에 대규모 대출과 신용보증을 공급한 탓에 수조원 대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떠안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번진 2009년 당시 직접 구상했다. 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부실채권 정리 등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면, 해당기관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한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에서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이 맡았다. 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돈을 흘



기업구조조정 정부 브리핑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안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이기권(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의 도관은행이 필요하다.

자본확충펀드의 설립과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담당하게 된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캠코 내에 설치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운영위원회 구성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는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수은, 산용보증기금, 신보, 기업은행, 캠코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한은에 요구

한 직접출자 방식과 달리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 입장이다.

한은은 풀공 중앙은행의 손실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했다. 한은이 출자한 지분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풀공 "자본확충펀드는 회수 가능한,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 가치를 반영해서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 선순위 대출, 기업은행이 캠코에 대출한 어음을 담보로 잡는 등 3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손실최소화 원칙을 지켰

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순위 대출의 형식으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한은의 대출에 대한 상황이 먼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원칙으로 내세우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 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기 전에 발표했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의 출자를 의결하고 향후 캐피탈 콜이 올 때마다 임시 금융위를 열어선 건 별로 의결할 방침이다. /안진수 기자

은행권의 여신(대출)심사 강화에도 가계 빛이 지난해에도 늘었다.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가계대출은 되레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올해 들어 최대치다. 2010~2014년 5월 평균치인 3조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작년(7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다만 주택 경기가 좋았던 1년 전(7조3000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도 늘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6조1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 빛 중 75%를 차지했다.

증가 규모는 1년 전(6조3000억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한달 전(4조6000억원)보다는 컸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가 강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계절적 요인(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임시공휴일 지정의 영향으로 한 달 동안 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744조1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은 전월보다 3조 이상 줄었다.

은행 수신은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국고여유자금과 법인의 단기 여유자금이 유입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총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안진수 기자

4월 시중통화량 증가폭 7%대 둔화

두 달 연속 내려가... 기타금융기관 5조8000억원 감소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1년 전보다 7% 늘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4월 시중통화량(M2·광의 통화)은 230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7%(평균·원계열 기준) 증가했다.

광의통화는 현금을 비롯해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2년 미만 정기에 적금 등 금융자산 등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올 들어 증가율은 1월 8.1%, 2월 8.3%로 두달 연속 상승하다 3월 7.8%, 4월 7%로 두달 연속 내려갔다.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7조9000억원)과 2년미만 금전신탁(2조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가 전월보다 6조9000억원, 기업이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은 5조8000억원 감소했다. /안진수 기자

조선 '빅3', 최악 상황 생존 10.4조 자구안 마련

현대중 3.6조 · 대우조선 5.3조 · 삼성중 1.5조

국내 대형 조선사는 앞으로 최소 2~3년간 최악의 상황이 와도 '생존'할 수 있도록 10조4000억 규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고 2018년까지 설비를 20% 줄이고, 인력도 30% 이상 감축,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주상황 악화를 고려해 강도 높은 자

구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는 현재 주채권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56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6년간 평균의 85% 수준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원, 비상 시 1000억원 더 늘린 3조6000억원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위해 비핵심자산

과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를 매각하고 Pre-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연 평균 81억 달러의 수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평균 6년치의 66% 수준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조8500억원 자구계획안에 추가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마련했다. 모두 5조3000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생산능력을 30%로 줄이고 대우조선해양양건설 등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특수선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한 뒤 전략적투자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3년 평균 55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6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감축과 잉여 생산 설비 매각, 유상증자 등을 단행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경영진단이 마무리되면 유상증자 규모 등을 확정할 것"을 예고했다. /안진수 기자

"한국 SW 여성 인력 비중 12.5%... 英美의 60%"

국내 소프트웨어(SW) 분야 여성 인력 비중이 미국 등 SW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8일 'SW여성인력 현황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SW분야 여성인력 비중은 12.5%로 SW시장규모 상위 1,2위인 미국 22.9%, 영국 19.1% 보다 7%p 이상 낮

았다. 영미 양국의 60% 수준이다.

그나마 여성 비중은 2011년 13.4%, 2012년 12.7%, 2013년 14.4%, 2014년 12.9%, 2015년 12.5% 등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하락했다.

보고서는 각 국가 공식승인통계(미국 BLS, 영국 ONS, 한국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취합해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ISCO 08)에 대조(매칭)하는 형태로 분석을 진행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